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2020.09.07.(월)

지부교섭 속보 12호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12차 지부교섭_추가 제시안 없음]

한온, 보쉬 막무가내 반대!



사용자 스스로도 한탄!

3일(목)일 열린 12차 지부교섭은 사용자 대표의 한탄으로 시작했다. 사측 대표는 “지부가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도 수용할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측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못해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일부 사용자가 끝까지 고집부리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도 한탄한 것이다. 사용자도 인정하듯이 올해 지부 요구안은 수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일부 사용자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배짱 튀기기가 교섭을 꼬이게 만들었다.

파업할 수밖에 없다!

지부는 교섭을 정회하고 한온시스템, 보쉬 사용자를 별도로 만났다. 한온시스템은 개별조합원 간부활동시간을, 보쉬는 공직취임을 반대하고 있다. 두 회사가 지부 요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풀어보고자 별도 면담을 진행했고 다음주까지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사측이 지금처럼 지부의 핵심적인 당면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만 한다면 파업을 유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9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 뿐만 아니라, 더 세계계속해서 파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용자 때문에 다른 사업장까지 피해보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12차 교섭 속기록

안되면 더 세게 파업할 수밖에 없다!

사 : 지난주에는 교섭이 열리지 못했는데 오늘도 확인해보니 관계 회사 중에서 감염자가 없었다는 게 큰 안도감이 있다. 올해 지부교섭이 처음 요구 안 봤을 때는 빨리 끝나겠다는 감을 받았는데 의외로 조합이 기대한만큼 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코로나 확산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니 살기 괴롭다. 긴 장마, 무더위, 태풍 등 걱정이 크다. 중앙교섭도 9월 15일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모든 일상이 바뀌고 있는데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한다. 지부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사측이 제시안을 못내서 미안하다. 노사가 투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식도 변해서 신뢰를 기본으로 어떻게 살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회사도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노사문화가 필요하다. 개인, 자영업, 회사 모두 빛으로 살고 있다. 나라 빛도 많이 늘고 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사가 머리 맞대고 서로 격려하고 한번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지부가 배려해주셨는데 확실히 수용할만한 제시안을 내야지 문구 적당히 바꾸는 수준이면 제시안 못내는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온과 보쉬에서 답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노 :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하면,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승소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게 맞는 것 같다. 지부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 일말의 기대를 했다. 제시안 못낸다니 유감스럽다. 중앙은 15일 기점으로 의견접근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9일에 금속노조 파업 결정하고 있다. 지부도 지회들에게 파업 독려하고 있다. 이렇

게 파업해야만 끝나는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 재벌 위주 경제체제라서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왜 노동자가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는지 모르겠다. 공직취임, 개별 조합원 시간할애는 지부의 당면 문제다. 노사가 서로 존중한다면 절박한 당면문제는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버티면 파업해서 돌파하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린다. 9일 파업으로도 안되면 그 이후 더 세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용자는 우리 사업장은 파업 안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업장이 파업지침을 유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장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공동의 원칙도 중요하다. 오늘 한온, 보쉬는 정회하고 따로 봤으면 좋겠다. 한온은 사무국장이 보고 보쉬는 지부장이 보겠다. 얘기 좀 해보자. 그 사업장 때문에 나머지 사업장이 피해볼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보자.

<정회> <한온, 보쉬 개별 면담>

노 : 양 회사가 노력해본다고 하니 다음주 교섭까지 노력해보자. 다음주 교섭에서 논의하자.

사 : 어려운 시기에 상호 상생을 가지고 노력하자.

노 : 투쟁을 해야할 것 같다.

차기 교섭 : 9/10(목) 15시, 한온 교육문화관